

세계의 養鷄産業動向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일 본

1964년부터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대량으로 일본 재래종 보다 능력이 우수한 산란계와 브로일러 우수종계를 수입하면서 일본 양계산업은 새로운 차원으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일본 양계산업의 발전은 양적인 면에서 보다 새로운 차원의 질적인 전진으로 변하여 미추비시, 이또, 마루베니, 미추부산 등의 큰 양계회사들이 설립되어 양계 선진국인 미국, 유럽의 육종회사들과 단독 기술계휴로 급속한 성장을 하여 왔다.

1960년대에는 매년 산란계의 사육수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1970년 부터 그 증가추세는 멈추어진 상태였으며 1962년 총 산란계 사육수수는 7천만 수로 4백만 양계 농가에서 평균 18수 정도의 사육 통계를 보였으나 1977년에는 1억 2천 백만의 사양수수로 32만 7천의 농가에서 평균 330수 정도를 기르는 수치로 볼 때 양적인 사양수수의 증가와 병행하여 대규모 사육의 변천을 알 수가 있다. 32만 7천 산란계 농가에서 30만 2천 농가가 300수 미만의 부업적인 양계경영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25,000농가 중에서 25,000 양계

장이 10,000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 전업 내지 기업의 양계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브로일러 산업은 18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1977년에 10,221농가에서 5억 3,400만수를 생산한 분포를 보였다.

양계생산물 소비 면에서 1978년 연간 일본 국민 1인당 닭고기 11kg, 계란 427개를 소비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전문가들은 계란소비는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이다. 닭고기의 소비량은 연간 7-9% 증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일본은 양계산업의 중요한 바탕인 사료원료의 생산이 실제 수요에 절대량 부족하여 앞으로 양계산업 발전에 큰 장애로 생각되고 있는데 1976년 미국에서 옥수수 720만톤, 수수 450만톤을 수입하였고 종계도 외국에서 수입종을 사용하고 있어서 양계산업의 근간인 종계와 사료원료의 수입은 어떤 형태로든지 일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그들이 원하는 양계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까지 산란계 산업은 정부의 별다른 정책적인 보호통제가 없이 이끌어 왔으나 백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몇몇 대기업 양계회사들이 설립되어 서로간에 경쟁이 생기고 군소 양계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며

계란값은 생산비의 보상이 어려운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 농무성은 시장의 안정과 소규모 양계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산란계의 사육수수를 제한하게 되었고 양계장의 규모확장에 대한 제제로 양계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높은 이자를 붙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양계장은 다른 양계장들과의 경쟁으로 인한 위험성이 줄고 대규모 사육을 원하는 양계가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현실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브로일러 산업에서는 아무런 정부의 통제가 없는데 닭고기 수요가 증가되고 또 브로일러 사육농가는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항시라도 통제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 가장 널리 사육되고 있는 브로일러 계통들은 하바드, 필치, 아바에이카 이고 산란계종으로는 세이브, 바브콕, 하이섹스, 데칼브 등이다.

지난 15년동안 일본의 조건에 알맞는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까지 널리 채택되고 있는 사육방법은 종계의 경우 평사에서 기르고 케이지의 사용은 거의하지 않고 있으며 실용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케이지 사육을 하고 있다. 최근들어 산란계 사육에서는 2층으로된 계사로서 3-4년동안 계분을 치우지 않고 닭을 기를 수 있는 계사에서 케이지의 사육이 대단히 효율적이라 인정받아 새로운 계사의 건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옛날의 계사들도 이러한 계사로 구조를 변형시키고 있다. 브로일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평사에서 기르고 있으며 브로일러 종계의 경우 암컷은 40-50일 사육 후에 분양되고 수컷의 경우에는 65-70일 정도 사육하여 처분하게 된다.

일본에서 가장 전형적인 양계 협동단체는 이즈미 양계가협회로서 이 기관은 브로일러와 산란계 종계를 가지고 이 협의 소속 회원들에게 분양하고 배합사료도 공급하며 질병 예방대책, 생산물의 운반 뿐만 아니라 계란과 닭고기 처리공장을 가지고 항상 농가에 일정

수준의 이들을 보장하는 값으로 소속 회원의 농가로 부터 닭고기와 계란을 사들이고 있어 일본 양계산업 발전에 큰 모범이 되고 있다. 이 협회는 산란계로는 세이브종계장과 브로일러는 아바에이카원종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질병예방 계획은 화이자 회사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 밖에 대기업 회사 체제의 양계장으로는 이세양계장으로 이 농장의 산란계 사육규모는 약 400만수이고 인근 농가와의 계약 사육수수 100만수를 합치면 500만수 규모의 세계적인 대 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토야마와 사 이타마현에서 큰 부화장을 운영하고 또 도쿄 근처에 2개소의 부화장을 설치하여 일본 최대 규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의 종계장에는 10만수 이상의 바브콕 산란종계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되는 모든 실용계의 70%는 자체 농장에서 사육하거나 계약농가에 분배하고 나머지 30%는 일반 사육자들에게 판매한다. 또 3개소의 계란 가공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파란은 모두 일본에서 가장 많이 마이오네스를 생산하고 있는 큐피드회사에 보내어 지는 계약이 되어 있어 이세농장 안에 큐피트의 파란 처리공장이 상설되어 있어 파란을 이용한 높은 질과 신선한 액상계란으로 우수한 마이오네스 생산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

이세양계회사의 가장 큰 시카마농장은 완전 무창계사의 20,000수용 여러개의 계사로서 관리되고 있는데 집란은 완전 자동으로 벨트로 계란 가공공장에 까지 운반되게 시설이 되어 있다. 이세계사에서 나온 계란의 포장에는 "Flower eggs"라는 상표가 붙어 동경, 오사카 등의 슈퍼마켓에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평으로 팔리고 있어 일부 소비자들은 Flower eggs만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인 도

인도에서는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는 농촌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실시되어온 양계업의 정책적인 권장이가 1970년 이후 계속 실시되어 1977년 까지 11,763개소의 양계장이 세워졌고 앞으로도 25,000개소의 새로운 양계농가를 설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양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농민들의 사양관리 미비와 질병대책이 원활하지 못하여 정부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웠고 특히 인도 양계산업의 킬러(Killer)인 감보로(Gumboro) 질병의 발연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978년 봉베이 근교에서만 10만수 이상의 닭이 이 질병에 의하여 죽었고 최근에는 더욱 심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효과적인 예방책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사업추진에 큰 난관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양계경영에 의욕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인도 화재보험연합 회사에서 100수 이상 닭을 사육하는 양계장의 건물, 기재, 닭에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좀더 안정된 양계산업은 생계유지 수단으로 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계사건물은 화재, 홍수 등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계사 1동당 2,100루피(262\$)까지 계사 내의 기재는 300루피(38\$)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닭은 질병이나 자연적인 재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인데 양계전문가나 수의사의 감정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게 되므로 건물이나 기재처럼 정해진 보상금이 없이 초생추부터 72주까지는 80루피(10\$)의 보험금, 8주에서 72주까지는 75루피(9.4\$)의 보험금을 내게 되면 실제 질병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의 80%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로서 양계산업 발전에 중추에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는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 ◎ 병리검사 무료 실시
- ◎ 호흡기병(CRD) 특약
- ◎ 빠다리병(포도상구균증) 특약

호평리에 발매중!

청랑리가축약품

*지방주문환영

서울동대문구전농 2동 597-32
 (한국육계회연락처) ☎ (주간) 966-8780
 (야간) 434-4878

